

# 14개 직종에서 최고 건설기능인 가린다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26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2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26일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130만 건설기능인을 대표해 281명이 14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 방수)에 출전해 그동안 자신이 연마했던 기술을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회장, 건설

공제조합 정환대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건설기술교육원 김석현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5%,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군들이며 앞으로 펼쳐질 선진한국의 기반도 여러분의 두 손에 달



응시현장을 찾아 참가자를 격려하는 내외귀빈  
(오른쪽 세번째,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

렸으니 자부심과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입상자 전원에게 상금 및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 지원

한편, 각 분야에 출전한 기능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70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금 및 상패,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국내외 산업연수 등 특전이 주어지며,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전국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9월 30일에 발표한 제2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수상자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소속으로는 건축배관 부문과 전기용접 부문에 6명이 입상했다.

이번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식은 오는 10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자)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명	소속 시·도회
건축배관	2위	도천기	(주)리더스산업	경북
	3위	손원수	(주)정도기연	부산
	3위	김영표	씨엔씨엔지니어링(주)	충북
전기용접	1위	이선학	(주)성보엔지니어링	서울
	2위	김백철	씨엔씨엔지니어링(주)	충북
	3위	유정환	(주)금화피에스시	서울